

## 목 차

### 📁 빅데이터 동향 ..... 31

- 해외** - "출산을 세계 꼴찌"... '바이오 빅 데이터'가 탈출 해법 내놓을까? ... 31
- 정책** - 바이오헬스 R&D에 2.2조 푼다...연구용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 ..... 32
- 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 .... 33
-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..... 34
- “한달도 늦다”...빅데이터·AI로 경기 상황 지표 '속보성' 높인다 ..... 35
- 통계청, 수출 빅데이터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... 36
- 한국문화정보원, 빅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 시작 ..... 37
- 경기도, 똑버스 데이터분석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 ..... 38
- 기업** -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, 건강 검진 빅데이터 구축 관련 심포지엄 .... 39



### "출산을 세계 꼴찌"... '바이오 빅 데이터'가 탈출 해법 내놓을까?

- 영국 BBC 방송, 최근 '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'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이 기사는 그날 BBC의 '가장 많이 읽은 기사'로 선정
  -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노동력 감소에 그치지 않고, 고령화·의료 시스템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분석
- 해당 기사는 무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'바이오 빅 데이터(bio big data)'라고 지적
  - 다양한 생물학적 및 건강 관련 데이터 소스(유전자·단백질·대사체 등)에서 수집된 방대한 바이오 빅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인의 결혼·출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패턴·요인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
  - 또한 바이오 빅 데이터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과 그것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낼 수 있는데, 이는 생리·심리적 측면을 모두 다루는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시해 저출산을 해결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
- 스웨덴의 경우 바이오 빅 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호르몬과 생식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바 있음
  - 해당 연구에서는 생활 속 스트레스가 난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함
  - 또한 이 연구는 심리적 요인이 난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, 이를 관리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
- 영국에서는 대규모 건강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난임 부부를 위한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
  - 해당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이나 배우자가 겪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 도출
- 초유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이오 빅 데이터 축적·활용은 매우 중요함
  -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바이오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, 의료기관·연구소·대학 등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출산과 관련된 데이터 품질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

출처 : 한국일보, "출산을 세계 꼴찌"... '바이오 빅 데이터'가 탈출 해법 내놓을까? (2024.3.30.)

## 바이오헬스 R&D에 2.2조 푼다...연구용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

- 정부, 각 의료기관별로 쉽게 공유되지 않는 의료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급 매칭 및 플랫폼 구축에 힘쓰기로 함
  - 올해 11개 부처에서 연구개발(R&D)에 2조원 이상 투자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 자산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
  -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 방안, 연구개발(R&D) 2024년 추진계획과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등을 논의

〈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〉



- 올해 바이오헬스 R&D 규모는 11개 부처 총 2조 2,138억 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&D 예산의 10%에 해당
  - 보건복지부가 '한국형 ARPA-H 프로젝트'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에 7,88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질병관리청이 1,681억 원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42억 원을 투입
- 정부, 규제장벽 과제 개선 방안에 따라 우선 현재 의료기관마다 각각 관리하는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
  - 올해는 정부에서 의료데이터가 필요한 기업·연구자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간 수급을 매칭하거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, 내년 이후에는 의료 데이터의 수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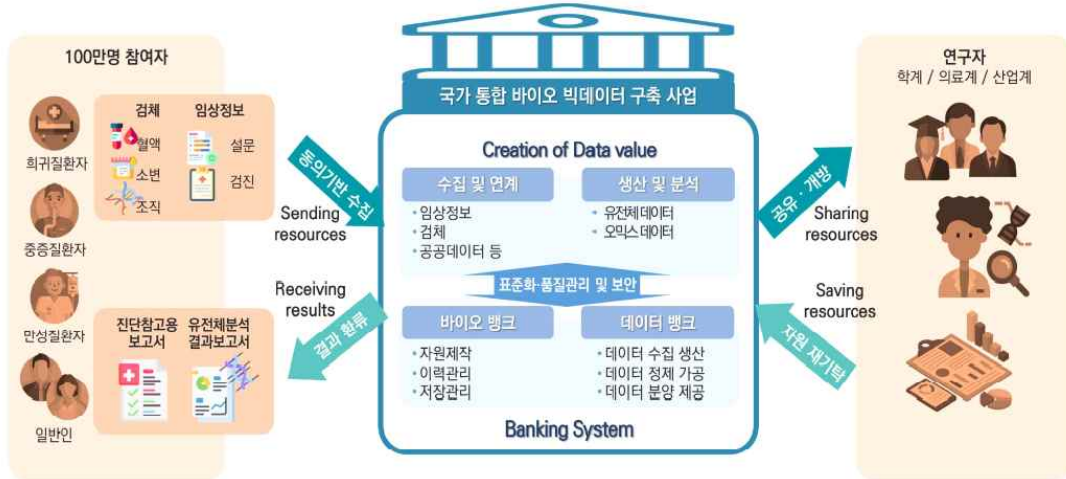
출처 : 서울경제, '바이오헬스 R&D에 올 2.2조 푼다...연구용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 (2024.4.4.)



## 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

- 보건복지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질병관리청(이하 ‘관계부처’)은 4월 17일 ‘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’ 개소식을 개최

〈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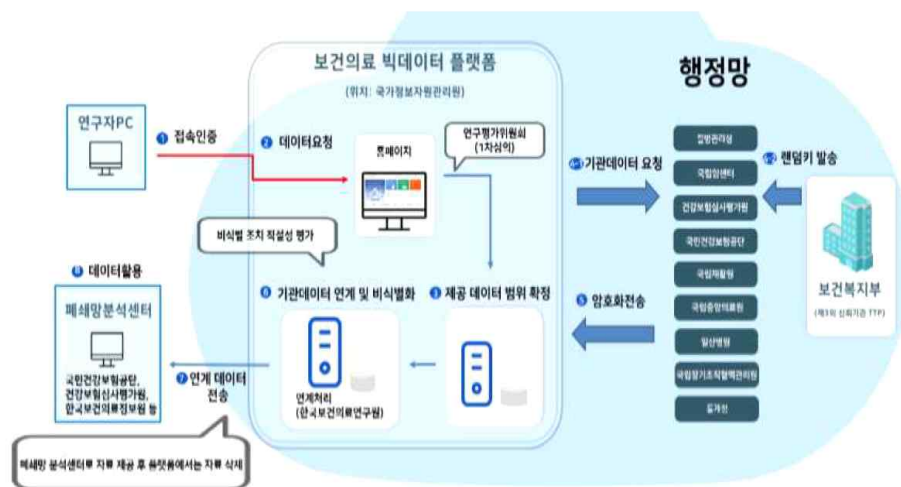
-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임상정보,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, 공공데이터,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을 통합하여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R&D 사업
- '24~'28년 77.2만 명의 바이오 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'32년까지 100만 명분의 바이오 빅데이터 DB를 구축 및 개방할 계획
-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으며,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
  -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,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
  - 향후 사업단은 과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,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 연구를 위해 개방할 예정
- 관계부처, 축사에서 “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, 맞춤형의료, 첨단의료기술 등에 활용되는 국가전략자산”이라고 강조하며,
  - “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와 가족,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힘

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 (2024.4.17.)

##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,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할 계획
  -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(이하 ‘플랫폼’)은 학계·연구계·의료계·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
  - 이후 AI 의료기기·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,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·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 중

〈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표 〉



-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·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존재
  -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·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심으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
  - 또한,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함
-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, “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·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”이라며
  - “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(2024.3.27.)

## “한달도 늦다”...빅데이터·AI로 경기 상황 지표 '속보성' 높인다

### ■ 정부, 보다 정밀하게 경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'속보성 지표'를 개발할 예정

- 기획재정부, 경기 예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에 착수
- 소비와 생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기의 움직임을 보다 빠르게 예측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속보성 지표의 개발 목표

〈 기획재정부 로고 〉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## ■ 기재부 관계자, “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외부충격의 경기 파급 속도가 빠르고 경기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는데, 소비·투자 등 실물경제 관련 공표지표는 시차가 길어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조기진단과 적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”고 언급

- 이는 경제 변동이 예전보다 빨라져 한 두달씩 늦게 발표되는 지표로는 정책 대응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
- 실제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이나 한국은행의 분기별 GDP 발표는 2~4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

### ■ 기획재정부, 해외 사례 분석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물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

- 모니터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는 드론·위성사진, GPS 데이터, 결제 정보, 구글 트렌드, 날씨, 뉴스 등 해외에서 기존에 활용 중인 비정형 고빈도·마이크로 데이터를 토대로 발굴하고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등을 폭넓게 검토해 유용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
-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실물지표를 개발하고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어떤 요인이 지표 변동에 영향을 미칠지 요인 분석도 병행할 계획

출처 : 전자신문, “한달도 늦다”...빅데이터·AI로 경기 상황 지표 '속보성' 높인다 (2024.4.14.)



## 통계청, 수출 빅데이터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

- 통계청(청장 이형일), 3월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이하 중견련)를 방문해 간담회 개최
  - 통계청과 중견련은 2023년 5월 16일 중견기업 관련 통계 작성·분석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, 그 후속조치로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연계한 ‘수출 빅데이터’ 서비스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
  - 수출 빅데이터 제공은 통계청의 금년도 핵심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, 기업별 규모(대·중·중소), 산업분류, 종사자, 개업 현황과 수출입무역액 등을 이용해 기업 무역특성의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, 이를 통한 기업 경영 지원 업무가 가능

〈 통계청-중견련 간담회에서 이형일 통계청장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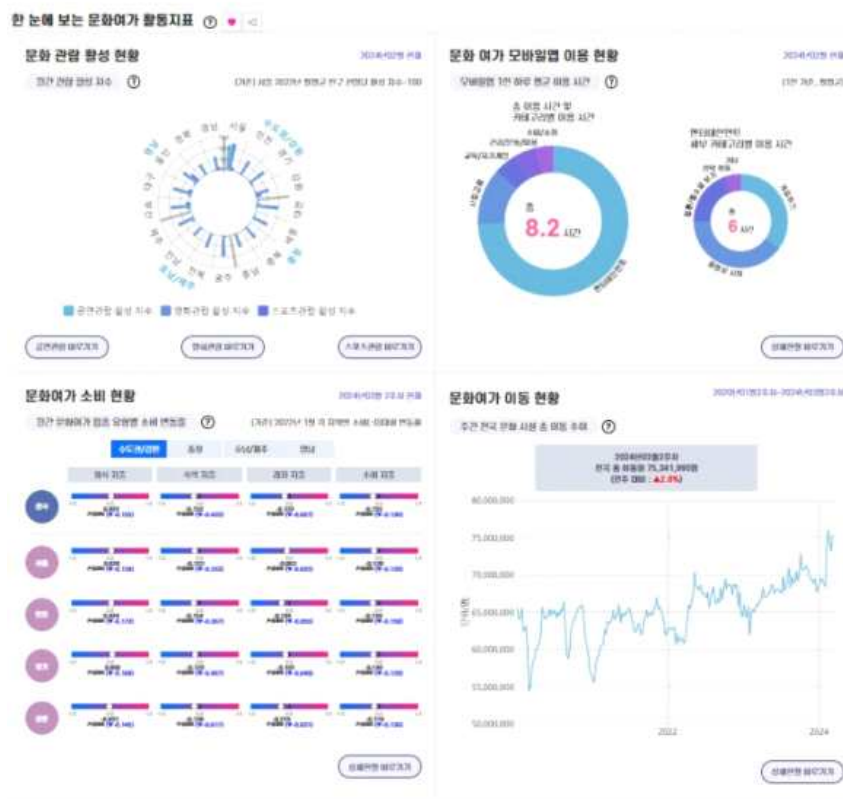
- 통계청, 지난 2월부터 ‘기업의 해외 통계 수요 창구’를 개설해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통계·데이터 리스트를 상시 발굴 중이며, 통계당국과 양자통계협력 체결 국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금년 중 맞춤형 해외 통계·데이터를 제공할 계획
  - 아울러,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공표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하고, 다차원 통계표를 추가하여 무역현황을 좀 더 입체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
- 이형일 통계청장, “통계청은 더 많은 기업·경제단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여, 기업의 수출과 경제활력 증진을 통계·데이터로 지원하겠다”라며
  - “올해도 역동경제 지원, 민생안정 뒷받침,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 작성과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”라고 강조

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통계청,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·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(2024.3.20.)

## 한국문화정보원, 빅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 시작

- 한국문화정보원, 누구나 우리 국민의 문화여가 생활 현황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 '문화여가 생활 관측소'를 새로 선보인다고 밝힘
  - 문화여가 생활 관측소 서비스는 국내 문화 여가 활동 및 자원 현황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결하고, 이를 누구나 한눈에 알기 쉽게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
  - 특히 공연, 영화, 스포츠, 모바일 등 그동안 파편화돼 있던 기존의 문화여가 활동 및 자원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, 분석할 수 있는 점이 특징
  - 지역 및 기간 단위는 이용자가 유동적으로 설정해 분석할 수 있으며, 최소 일 단위 분석 데이터부터 확인이 가능해 더욱 시의성 있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

〈한 눈에 보는 문화여가 활동지표 (출처: 한국문화정보원)〉



- 서비스는 13개 기관 및 기업에서 수집하는 원천데이터 20종을 바탕으로 운영하며, 매일 15일 신규 데이터를 갱신해 제공
- 한국문화정보원, “이번 서비스를 통해 문화 분야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유관 산업계 성장을 지원하겠다”고 언급

출처 : 이투데이, '한국문화정보원,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서비스 '문화여가 생활 관측소' 시작 (2024.4.4.)



## 경기도, 똑버스 데이터분석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

- 경기도,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'똑버스' 운영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예정
  - '똑버스'는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(AI)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스마트앱(똑타 앱)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
  - 경기도는 수원 광고신도시를 대상으로 똑버스의 호출, 대기시간, 운행거리 등 똑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교통 통행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

〈똑버스 (출처: 뉴시스)〉



-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, "빅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했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,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" 면서
  - "도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힘

출처 : 뉴시스, 경기도, 똑버스 데이터분석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 (2024.4.7.)

##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, 건강 검진 빅데이터 구축 관련 심포지엄

-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, 4월 2일 '초고령사회, 건강검진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방안' 심포지엄을 개최
  -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기관별로 시행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빅데이터화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
-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, "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는 디지털화를 거침으로써 의료진이 건강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"면서
  - "더 나아가 이런 건강검진 결과가 빅데이터화된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질병 위험 예측이나 개인화된 건강관리 계획 수립,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등에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"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

출처 : M메디소비자뉴스,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, '초고령사회, 건강 검진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방안' 심포지엄 (2024.4.2.)